

## “우리는 부속품이 아니다. 직장폐쇄 박살낸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일진그룹 규탄 상경투쟁 ... “농성 16일 동안 당당한 투쟁가로 거듭났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일진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를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 전북지부와 지회는 5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상습적 노조파괴 일진그룹 규탄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 완주의 일진하이솔루스가 지난 5월 2일 불법 직장폐쇄에 들어간 지 16일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지회는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불법 대체인력을 막는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창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대회 투쟁사를 통해 “1차 교섭 때 서로 상생하자던 사측 대표의 말을 잊을 수 없다” 라면서 “사측은 앞에서 13차례 교섭하며 지회 요구를 들어주는 척 시간을 벌고, 뒤에서 파업 대비를 마쳤다. 노동자를 회사 밖으로 내쫓는 게 상생이냐” 라며 일갈했다.

김창현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은 허수아비 노조를 원하고 있다. 일진



하이솔루스 앞마당에 금속노조 깃발을 세울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싸우겠다” 라고 결의했다.

신태영 지회 조합원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일했지만, 쟁의행위 사흘 만에 회사 밖으로 내쫓겨 생존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라며 “사측은 노동자들을 기계 부속품이나 노예로 생각한다” 라며 분노했다.

문태 지회 조합원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면서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철회 농성 투쟁 16일 동안 당당한 투쟁가로 거듭났다. 조합원들의 힘으로 반드시 일진 자본을 박살 내고 직장폐쇄 분쇄하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경찰은 매일 공장 앞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합법 집회조차 방해했다” 라면서 “급기야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지부·지회 간부와 조합원들

을 불법 연행했다” 라고 규탄했다.

유준 지부장은 “일진그룹은 계열사 현장에 금속노조가 들어서면 노동자 생존권을 인질 삼아 상습 직장폐쇄로 노조를 탄압했다” 라며 “일진 자본은 노조의 대화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소노조는 일진하이솔루스 동지들이 노조 기본권을 되찾고, 일진의 직장폐쇄를 분쇄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일진그룹은 2000년 일진소재,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 2023년 5월 2일 일진하이솔루스 등 20년 넘게 계열사 현장에 노조가 들어서면 노동자 임금을 끊는 직장폐쇄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

# “현대차 멈춰야 서진하청 정리하고 철회할 수 있다”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본사 상경투쟁 ... “현대차 기획, 서진 공모해 해고 학살”

금속노조 울산지부 운영위원과 조합원들이 붉은 깃발에 손도장을 찍으며,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총고용을 보장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투쟁 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서진산업 기획폐업, 정리하고 만행, 현대자동차 정의선 규탄 금속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5월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 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상경해 현대자동차의 갑질과 하청업체 폐업을 규탄했다.

최용규 노조 울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어제부터 길거리에서 양회동 열사의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 투쟁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더 위력적인 방법으로 정권과 현대차 재벌을 타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용규 지부장은 “5월 31일 금속노조 파업으로 현대자동차를 세우고, 이후 쟁의권을 확보해 시도 때도 없이 현대자동차 라인을 멈춰야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

리하고, 공장폐쇄는 현대자동차가 기획하고 서진산업이 공모해서 만든 기획 폐업, 대량 학살 사건이다”라며 “5월 31일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이고,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고용보장의 단초를 만드는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손한락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장은 “어제 서진산업에 납품하는 모택이 30명 가까이 해고 통보했다고 한다”라면서 “대량해고 사태는 서진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에 원인이 있다. 금속노동자 동지들의 지지와 엄호로 반드시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서진산업이 임대한 공장용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면서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와 원청 서진산업은 하청 동태산업의 사장도 모르



게 동태산업 양산 아이템을 서진산업의 경쟁업체인 코리아 휠에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현대자동차의 갑질로 20년 이상 일한 지회 조합원 41명이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지회는 서진산업이 약속한 총고용보장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17일째 공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대기업 현대자동차 갑질, 계획 업체 폐업 현대자동차·서진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장용지 이전과 양산 아이템 이전 중단 ▲총고용보장합의 즉시 이행 등을 촉구했다.